2021년 12월 22일(수) 석간용
이 보도자료는 12.22.(수) 오전06:00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소상공인정책담당관

소상공인정책담당관	임근래	2133-5530 010-3422-7372
시장활성화팀장	한봉기	2133-5543 010-5007-2008
담당자	김기혁	2133-5557 010-2829-7879
관련홈페이지 (메뉴)	https://www.bamdokkaebi.org/	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4매

서울시, 겨울명소 크리스마스마켓 23일 개장…철저한 방역관리 속 운영

- 23일(목)~31일(금) 14시~20시 DDP 알림터에서 '2021 서울크리스마스 마켓' 운영
- 수공예작가·소상공인이 제작한 제품 전시 및 판매, 감염예방위해 푸드트럭 미운영
- 회당 참여상인 40팀, 동시관람객 387명으로 한정,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 가능
- 시민들에게 겨울의 낭만 전하고,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증대 기회

□ 겨울명소 '서울크리스마스 마켓'이 오는 23일(목)부터 31일(금)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에서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운영된다.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 푸드트럭 운영은 하지 않고 작가들의 수공예품(핸드메이드)판매와 작품 전시 등 볼거리 위주로 구성했다.

□ 그동안 대면으로 소비자와 주로 만났던 핸드메이드 작가, 수공예품 판매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

있어 철저한 방역관리 속 크리스마켓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.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.

<23일(목)~31일(금) 14시~20시 DDP 알림터에서 '2021 서울크리스마스 마켓' 운영>

□ 「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」은 23일(목)~31일(금) 매일 오후 2시~8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알림터 알림2관에서 열린다.

□ 이번 마켓의 콘셉트는 '크리스마스 공항-산타나라로의 여행'으로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조명과 소품을 비롯해 상인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, 뜨개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·판매한다.

○ 수제 볼펜이나 연필, 열쇠고리 등의 문구류, 다양한 반려동물용품, 마스크 스트랩과 같은 방역용품, 지갑, 에코백, 장신구, 액자, 도자기 그릇과 같은 생활 잡화나 목걸이, 반지, 원석 팔찌 등과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도 구매할 수 있다.

<회당 참여상인 40팀, 동시관람객 387명으로 한정,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 가능>

□ 특히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회차별 판매상인은 40팀으로 한정해 정부 '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를 철저히 준수하며 순간 최대 관람객은 'DDP 전시시설 관람객 방역 및 운영지침'에 따라 387명으로 제한한다. 또 원칙적으로 접종완료자,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*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.

*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 대상,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
□ 아울러 푸드트럭 미운영을 비롯해 관람객의 취식 행위 역시 전면 금지하고, 방문객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인증 및 안심콜 출입관리와 발열체크 등 입장부터 퇴장까지 안전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.

□ 「2021 서울크리스마스마켓」운영 관련 내용과 문의는 홈페이지(www.bamdokkaebi.org)에서 확인하면 되고, 코로나19 확산위험 등에 따라 행사일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.

□ '서울크리스마스마켓'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판로를 제안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과 연계, '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서울대표 문화관광콘텐츠 중 하나다.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됐다.

□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"어렵게 재개장하는 서울크리스마스마켓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연말의 낭만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속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마켓으로 운영하겠다"고 말했다.

붙임 행사 포스터

붙임	2021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크리스마스마켓 포스터